

미혼모의 정신건강과 모-자녀 상호작용 특성 분석*

이 경 숙[†] 노 정 숙 김 수 진

한신대학교

소아청소년마음연구소디딤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양육특성을 파악하고자 정신건강 면에서 우울, 불안,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다각적인 모-자녀 상호작용 특성을 일반모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미혼모 연구대상은 경기도 미혼모자공동생활 2개 가정과 서울 소재 미혼모 1개 시설의 양육미혼모와 그 영아자녀들로 미혼모 10가족이 참여하였다. 비교집단으로 미혼모 자녀와 생활연령대가 같은 일반모와 영아기 자녀로 구성된 10가족이 발달평가에 동의하고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도구는 모의 정신건강 측정도구로 우울(CES-D-10), 불안(STAI), 한국판 양육스트레스 단축형 척도(K-PSI-SF)를 사용하였고, 모와 영아간의 상호작용은 구조화된 놀이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상 모-영아 상호작용 행동평정척도, 모의 비전형적인 행동 측정과 분류도구 (AMBIANC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미혼모의 영아들이 일반모의 영아들보다 모와의 상호작용시 회피, 저항을 더 많이 보였고, 긍정적인 정서와 관심추구를 덜 보였으며 미혼모들이 일반모들에 비해 영아들과의 상호작용 시 침해, 체념과 불안 행동을 더 많이 보였고 참여와 민감성, 긍정적인 정서를 덜 보였다. 또한 미혼모집단에서 모와 영아 상호간 성공적인 개입과 영아스트레스 조절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혼모집단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친밀한 억양 사용, 아이의 신호에 반응적 행동을 시도하지 못함, 신체적으로 부정적, 침해적인 행동, 언어적으로 부정적, 침해적인 행동, 갖고 있는 물건을 뺏음, 아이로부터 거리감을 두는 비전형적인 행동이 더 나타났다.

주요어 : 미혼모, 영아, 정신건강, 모-자녀 상호작용, 비전형적행동

* 이 연구는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이경숙,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E-mail : debkslee@hs.ac.kr

우리 사회는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인구의 규모 및 비중이 감소하고 아동 양육지원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게 되었다(아동정책기본계획, 2016.6.10). 그리고 수년전부터는 한부모 가족의 출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여성가족부, 2012.8.2.)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4) 자료에 의하면 한부모 가구의 형성 원인 중 2000년도 기준 미혼모·부가 10.9%에서 2010년에는 11.6%로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의 통계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서 추측이 가능하지만 이중 양육 미혼모의 통계는 없어 여성가족부 자체적으로 양육미혼모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지침, 한부모가구 비율, 2014). 2015년 기준으로 미혼모는 25세부터 49세까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혼모·부의 자녀 연령을 보면 미혼모 자녀의 경우 0~4세까지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기에(네이버블로그 위드맘 2016.12.12.) 영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각별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미혼모 양육에 대한 이해와 접근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정확한 국가적 통계확보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전체 미혼모 중 자녀를 양육하려는 미혼모의 비율은 1984년 5.8%, 1998년 7.2%, 2005년 31.7%, 2009년 66.4%로 증가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2009). 양육 미혼모들은 아기에 대한 강한 모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미혼모에 대한 심층면접결과 새로운 생활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희망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알 수 있다(이복숙, 전영주 2005). 또한 자녀양육에 전념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취업지원이나 법·제도적 환경 개선보다는 자녀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계비 지원과 아동양육비 지원 등을 더 필요로 하였으며, 아기돌봄지원, 자녀양육법 교육 등을 많이 필요로 하였다(김혜영, 2010).

미혼모의 소득 특성별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자녀 출생당시 미혼모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혼모의 경우 그렇지 않은 미혼모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았다. 1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시설이용경험자의 경우 56.9%로 시설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32.2%에 불과하였다. 반면 150만원 이상 소득자는 시설이용경험자의 경우 15.7%이지만, 시설이용경험이 없는 경우는 35.5%로 2배 이상에 달한다. 이 같은 소득 분포 차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미혼모들이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미정, 2011). 그리고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미혼모의 고졸이하 학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이선경, 2014)

미혼모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고(한상순, 2002) 주변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와 임신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자신의 위기상황을 적절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출산 후 사회 재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배영미, 2001). 우리 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수하면서도 양육을하기로 결정한 미혼모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다. 개인적인 문제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회의적인 면과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키워야 한다는 의무감, 아동에 대한 방임적인 부분들, 내적 갈등과 불안, 분노, 우울감, 스트레스, 충동성(남미애, 2013; 주석진, 2011; 전영천, 2009; 정경순, 2008; 최윤정, 2008; 이명희, 2007; 이애령, 2004; 김만지, 2000) 낮은 자존감, 우울증상과 양육스트레스(Wahn & Nissen E, 2008; Aurora, Kathleen & Crystal, 2013; Lonja, Ralf & Matthias, 2014)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들의 부정적 시선과 냉대, 원가족들이 지속적인 임신 사실을 부정하거나 강제적인 낙태의 시도(안순덕, 1984; 김혜영, 2010)가 있다. 아기 아버지와의 이별로 인한 아기아버지의 부재가 미혼모에게는 외로움과 더불어 분노감이 함께 공존하게 하는 양가감정을 가지게 하며, 인생의 실패감을 느끼게도 한다(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13).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들은 미혼모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박영혜, 2015).

Bowlby(1982)는 아동이 양육자와의 유대를 통해서 자신의 정서 상태를 조절하고 생애 전반에 걸쳐 자신과 타인의 안정적인 관계성에 대한 내적 모델을 성립한다고 하면서 양육자와의 유대감을 중요시 했고, 특히 일차양육자의 가용성과 반응능력을 강조했다. 양육자의 행동을 통한 초기 영아기 경험 유형이 후기 아동기의 정신건강과 밀접히 연결되는 점에서(Schore, 2000), 미혼모의 일차양육자로서의 양육행동이나 상호작용 특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국내의 미혼모 관련 선행연구의 주제는 미혼모의 생애사 연구(이숙희, 2001; 이복숙 · 전영주, 2005; 최경화, 2006; 김영신, 2011; 권희정, 2014),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행동에 관련된 연구(김만지, 2000: 2002), 미혼

모 아동의 입양관련 연구(윤미현, 2000; 임혜영 · 이혁구, 2013; 이은주 · 최규련, 2014), 청소년 미혼모의 개인심리적 특성과 가족체계에 관한 연구에 관한 연구(배영미, 2001; 윤미현 · 이재연, 2002; 전은희, 2003; 박혜경, 2014),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관련 및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석홍, 1990; 손홍숙, 1995; 한영란 · 양순옥, 1997; 김만지, 2000; 도미향 · 정은미, 2001; 배영미, 2001; 최승희, 2003; 서정애, 2009; 김혜영, 2010; 홍봉선 · 남미애, 2011) 등 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루어져왔고 미혼모의 복지대책을 위한 생애 특성 및 양육 특성 분석과 관련한 연구들을 통해 요구사항을 파악하고는 있다. 그러나 실제 모-자녀 상호작용의 특성을 분석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의 욕구에 맞는 심리교육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접근이 매우 드물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자녀 상호작용행동과 모의 양육효능감 및 놀이신념의 관계 -양육미혼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을 중심으로(신승렬, 2015)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 연구에서는 향후 상호작용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수집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신승렬, 2015).

최근 여성가족부는 「2016년 가족행복드림 시범사업」을 통해 ‘부모-자녀 갈등관계’, ‘방임’, ‘정서’, ‘신체학대’에 대한 개선효과와 가족관계에서의 ‘정서적 유대감’ 향상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사업을 본격 확대 시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 가정과 일반모 가정의 양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울 · 불안 ·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뒤, 두 집단 간 모-자녀 상호작용 행동 및 양육에 있어 모의 비전형적인 행동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통해 미혼모의 초기 양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모-자녀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혼모의 영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미혼모의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양육을 도와 자녀가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모와 일반모 집단 간의 양육관련 주요 정신건강 특성인 우울, 불안,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미혼모와 일반모 집단 간의 모-자녀

상호작용 및 비전형적인 행동에서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미혼모와 일반모 집단 간 놀이 상황 단계별 상호작용 및 비전형적 상호작용에서의 차이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미혼모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두 곳과 서울특별시 한 곳의 미혼모자공동생활 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혼모와 그 영아 자

표 1. 연구에 참여한 미혼모와 일반모의 일반적 사항

	미혼모(n=10)	일반모(n=10)
	n	n
영아의 성별		
남	4	3
여	6	7
영아의 평균 연령(개월)	13.9(7.2)	14.3(8.1)
모의 평균 임신연령(세)	24.3(6.2)	31.8(3.0)
모의 직업		
유	1	8
무	9	2
월수입		
60미만	7	
50-150	3	
150-250		
250-350		2
350-450		1
450이상		7

표 1. 연구에 참여한 미혼모와 일반모의 일반적 사항 (계속)

	미혼모(n=10)	일반모(n=10)
모의 학력		
고졸	8	
초대졸	2	
대졸		6
대학원졸		4

녀들로 총 15가족이 참여하였다. 비교집단으로 미혼모 자녀와 생활연령대가 같은 일반모 자녀 10가족이 경기도내 어린이집을 통해 모집되어 발달평가에 동의하고 연구에 참여하였다. 미혼모 최종 대상자는 발달평가 및 비디오표영(놀이평가)을 허가한 10가족으로 그 자녀의 연령은 5-26개월 사이에 분포되었다.

미혼모와 일반모의 인구학적 특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미혼모의 자녀는 10명 중 남아 4명, 여아 6명으로 여아가 많았으며 영아의 평균 개월 수는 13.9개월이었다. 모의 평균 임신연령은 24.3세이며, 학력은 10명중 8명이 고졸, 2명은 초대졸 이었다. 직업 상태는 10명중 임시직 1명을 제외한 9명 모두 무직상태로 보고되었다. 소득수준은 10명중 7명이 60만원 미만으로 보고하였으며 3명은 부정기적으로 100만원 내외에서 수입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모는 모두 결혼상태였으며 자녀는 10명중 남아 3명, 여아 7명으로 여아가 많았으며 영아의 평균 개월 수는 14.3개월이었다. 모의 평균 임신연령은 31.8세이며, 학력은 10명중 6명이 대졸, 4명은 대학원졸이었고 10명중 8명이 직업이 있었고 2명은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다. 소득수준은 10명중 7명이 4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보고하였

고, 1명은 350~450만원, 2명은 250~350만원으로 보고하였다.

측정도구

우울척도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10: CES-D-10)

본 연구에서는 모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Redloff가 1977년에 개발한 CES-D(Center of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의 단축형 CES-D-10을 사용하였다. CES-D-10은 1994년에 Andresen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20문항을 10문항으로 단축하였고, 기존의 CES-D와 비교하였을 때 일치도가 높았다($\kappa=.97, p<.001$, Andresen, Malmgren, Carter, & Patrick, 1994). 우울증상 대상 연구에서 CES-D-10에서 8-10점을 기준으로 진단할 수 있는 상태라는 보고에 따라 (Thróstur et, al., 2013) 본 연구의 대상자가 정상군인 것을 고려하면 총점이 약 8점 정도인 것은 우울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였다.

상태 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모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가 개

발하고 김정탁과 신동균(1978)이 번안하여 한국인에 맞게 표준화한 STAI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상태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다. 상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척도이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위 연구에서 측정한 상태불안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였다.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검사

(Korean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 (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를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 김혜진 (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검사(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K-PSI-SF)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의 자기보고 형식으로, 부모의 고통(PD),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P-CDI)과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DC)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각 12문항씩 이루어져있다. 응답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이루어진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며, 가능한 전체 점수 범위는 36-180점이다. 그리고 마지막 34, 35, 36문항은 역산으로 계산하도록 하며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부모의 고통(Parental Distress:PD)은 (Cronbach's α) .81,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P-CDI)은 (Cronbach's α) .79, 그리고 까다로운 아동(Difficult Child; DC)

은 (Cronbach's α) .85이다.

모-영아 상호작용 행동평정척도

모와 영아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well과 동료들(Crowell & Feldman, 1988; Zeanah, et.al. 1997)과 Tronick와 Weinberg(1992)가 개발한 구조화 또는 반 구조화된 상호작용 시리즈를 활용하여 개발한 Miller(2000)의 평정체계를 수정 보완해 한지현(2005)이 사용한 모-영아 상호작용 행동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Miller(2000)의 평정체계는 영아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영아코드(긍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정서, 회피, 저항, 관심 추구, 고통 조절, 대상 개입, 자기 개입)와 모의 행동을 범주화하기 위한 모 코드(참여, 민감성, 침해, 긍정적인 정서, 체념/불안정 행동, 거절) 그리고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상호작용 코드(성공적인 개입, 영아 고통의 조절)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모와 영아 행동은 0점(목표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에서 3점(행동이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남)의 범위를 이루는 4점 척도로 평정되었다.

한 대의 카메라가 설치된 조용한 방에서 장난감이 없는 자유놀이와 상자 안에 영아의 발달연령에 적합한 장난감(표 2에 제시됨)을 넣어놓고 장난감 없이 약 5분 정도 자유놀이를 가정에서 영아와 자연스럽게 놀아주는 것과 같이 상호작용 하도록 지시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약 5분정도 상자속의 장난감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놀이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약 10분 정도는 제공된 장난감을 가지고 지정된 순서에 따라 상호작용을 하도록 지시한 후 검사자는 실험하는 장소 밖에서 놀이과정에 대한 진행과 녹화를 하였다. 비디오 녹화는 장난감 없는 자유놀이 5분, 장난감 있는

표 2. 상호작용 놀이 상황별로 사용된 장난감 종류 및 내용

상호작용 놀이상황	시간	장난감 종류
1단계	5분	장난감 없는 자유놀이
2단계	5분	장난감 있는 자유놀이(별 끼우기, 줄 달린 오리, 나무토막 상자, 소리나는 돼지저금통, 킥 끼우기, 자동차, 소리나는 강아지, 소리나는 인형)
3단계	10분	지정된 순서가 있는 구조화된 놀이 (딸랑이-형겅공-스펀지 블록-나무 블록-책임더박스)

자유놀이 5분 지정된 장난감 순서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놀이 10분으로 총 3단계 구성이다. 장난감 없는 자유놀이와 장난감 있는 자유놀이는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지정된 순서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놀이는 구조화된 총 10분이 기록 되었으나 시작부터 5분까지 분석에 사용하였다. 영아와 부모 상호작용 연구에서 Stolt 외 등(2014)이 모-자녀의 전체 놀이 과정에서 5분 샘플 분석을 하였고, 3단계 놀이 구조 분석을 한 국내 연구 결과 초기 5분에서 후기 5분으로 갈수록 미혼모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이 감소한다는 결과(신승렬, 2015)에 따라 미혼모의 놀이를 일반모와 비교하여 보다 객관적인 특징을 찾고자 지정된 순서에 따라 한 놀이 10분에서 초반 5분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놀이는 60초 단위로 분석하여 채점했고, 가능한 전체 점수 범위는 0-60점이며 본 연구에서의 관찰자간 모-영아 상호작용 행동평정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67 이었다.

모의 비전형적 행동 측정과 분류도구(The Atypical Maternal Behavior Instrument for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AMBIANCE)

Bronfman, Parsons와 Lyons-Ruth(1999)에 의해 개발된 모의 비전형적 행동 측정과 분류도구

(AMBIANCE: the Atypical Maternal Behavior Instrument for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로 이 제영, 이경숙, 정유경, 신의진(201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모가 영아에게 행할 수 있는 침해적인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로 전체 17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관찰되는 놀이 상황 동안 모가 영아에게 행하는 침해적인 행동이 나타나면 그에 맞는 번호에 체크한다. 항목은 (1)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친밀한 억양을 섞어서 사용한다 (2) 아이에게 어떤 것을 시켜놓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3) 아이의 신호에 반응적 행동을 시도하지 못한다 (4) 아이가 넘어졌는데 달래주지 않는다 (5) 아이의 행동에 부적절한 정서를 보인다 (6) 아이한테 어떤 정서(애정)을 요구한다 (7) 아이의 신체 중 부적절한 부분을 만진다 (8) 아이한테 놀라거나 당황하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이상한 정서를 표현한다 (9) 환경의 변화와 관련없는 갑작스러운 기분변화를 보인다 (10) 아이를 무생물인 것처럼 다루는 비정향적, 비조직화된 모습을 보인다 (11) 신체적으로 부정적이고 침해적인 행동을 한다 (12) 언어적으로 부정적이고 침해적인 행동을 한다 (13) 부정적인 감정과 동기를 부여한다 (14) 갖고 있는 물건을 뺏는다 (15) 아이로부터 거리감을 둔다 (16) 아이로부터 언어적 거리감을 둔다(언어적

철회) (17) 장난감을 쫓아가게끔 아이를 자기에게서 멀리 있게 한다 등 총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찰되는 놀이 시간 동안 침해적인 행동이 나타나면 그 행동이 해당되는 번호에 O로 표시하거나 나타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X표시로 체크하며 O표시는 1점, X표시는 0점으로 측정하여 총 개수를 세었다. 가능한 전체 점수 범위는 0-15점이고 AMBIANCE 관찰자간 신뢰도(Cronbach's α)는 .61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진행은 설문조사와 비디오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설문조사에 동의한 미혼모에게는 설문지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이 이루어진 후 각자가 가정에서 설문지를 작성하여 비디오 촬영시 수거하였다. 일반모의 경우 전화상으로 설문지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모-자녀 상호작용 비디오 녹화를 위해 한신대학교 한신아동발달상담연구센터에 방문하였을 때 설문지 작성 후 수거되었다.

미혼모의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비디오 촬영은 본 실험 내용과 소요시간에 대해 설명 받고 참여에 동의한 미혼모자의 거주공동생활시설 내 공동놀이실에서 이루어졌다. 일반모의 비디오 촬영은 한신아동발달상담연구센터 내 놀이치료실에서 동일한 절차 통하여 이루어졌다. 결과는 검사 시에 이루어진 자유놀이(Free Play)의 녹화 DVD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1) Crowell과 동료들(Crowell & Feldman, 1988; Zeanah et. al, 1997)과 Tronick과 Weinberg (1992)가 개발한 구조화 또는 반 구조화된 상호작용 시리즈를 활용하여 개발한 Miller(2000)의 평정

체계를 수정 보완해 한지현(2005)이 사용한 모-영아 상호작용 행동평정척도 (2) Bronfman, Parsons와 Lyons-Ruth(1999)의 AMBIANCE로 하였으며, 녹화된 20분의 놀이상황 동안 모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이후에 각 기준에 맞추어 점수를 채점하였다. 평정자는 아동발달과 발달정신병리를 전공한 석사 졸업과 박사 수료생 2인으로 10년간 영유아 아동 놀이치료와 발달임상 장면에서 활동하였고 이들은 영유아 발달 및 정신건강 전문가로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갖춘 현장경험 30년 이상의 임상가로부터 평정훈련을 받았다. 그 결과 관찰자간 모-영아 상호작용 행동평정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67 이었고, AMBIANCE의 관찰자간 신뢰도(Cronbach's α)는 .61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와 일반모의 집단 간 양육관련 주요 정신건강 특성인 우울, 불안, 양육스트레스와 모-자녀 상호작용 및 비전형적인 행동의 차이 그리고 놀이 상황 단계별 상호작용 및 비전형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IBM SPSS v22을 사용하였다.

결 과

미혼모와 일반모 두 집단 간 우울, 불안, 양육스트레스 비교분석

모의 우울(CED-S-10), 불안(STAI), 양육스트레스(K-PSI-SF) 결과의 차이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미혼모와 일반모 집단 간 모의 우울(CED-S-

표 3. 미혼모와 일반모 두 집단 간 우울과 불안, 양육스트레스 비교분석

	미혼모(n=10)	일반모(n=10)	t
	M(SD)	M(SD)	
우울	7.90(5.30)	4.60(2.41)	-1.79
불안	44.80(9.23)	44.60(5.76)	-0.58
K-PSI-SF	부모의 고통(PD)	67.30(26.57)	.59
	역기능적 상호작용(PCDI)	45.95(37.26)	-.524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DC)	43.00(30.43)	.72
	총합	48.30(29.38)	55.45(22.05)

10), 불안(STAI), 양육스트레스(K-PSI-SF)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미혼모집단의 경우 우울(CED-S-10)검사 결과 평균 7.9점으로 우울점수 절단점인 8점과 거의 유사한 우울정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와 일반모 두 집단 간 모와 영아의 상호작용 분석 비교

미혼모와 일반모 두 집단 간 놀이평가 시 나타난 모와 영아의 상호작용 행동척도의 차이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영아행동영역에서 긍정적인 정서($t=4.47, p<.05$), 회피($t=-3.47,$

$p<.05$), 저항($t=-2.27, p<.05$), 관심추구($t=2.54, p<.05$), 모 행동영역에서 참여($t=2.14, p<.05$), 민감성($t=6.81, p<.05$), 침해($t=-3.41, p<.05$), 긍정적인 정서($t=6.01, p<.05$), 체념/불안 행동($t=-3.42, p<.05$), 상호간행동영역에서 성공적인 개입($t=5.12, p<.05$), 영아 스트레스의 조절($t=2.70, p<.05$)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미혼모 집단의 영아들이 일반모 집단의 영아들보다 모와의 상호작용시 회피, 저항을 더 많이 보였고, 긍정적인 정서와 관심추구를 덜 보였으며 미혼모들이 일반모들에 비해 영아들과의 상호작용시 침해, 체념과 불안 행동을 더 많이 보였고 참여와 민감성,

표 4. 두 집단 간 모-영아 상호작용 행동평정척도 비교

행동평정척도	미혼모(n=10)	일반모(n=10)	t
	M(SD)	M(SD)	
긍정적인 정서	.48(.43)	1.63(.69)	4.47*
부정적인 정서	.40(.41)	.15(.20)	-1.65
회피	.81(.56)	.17(.20)	-3.47*
저항	.32(.24)	.12(.16)	-2.27*
관심추구	2.01(.52)	2.53(.39)	2.54*
스트레스 조절	2.40(.69)	2.83(.18)	1.93
대상개입	1.34(.33)	1.62(.26)	2.10
자기개입	.10(.20)	.30(.32)	1.68

표 4. 두 집단 간 모-영아 상호작용 행동평정척도 비교

(계속)

행동평정척도	미혼모(n=10)	일반모(n=10)	t	
	M(SD)	M(SD)		
모행동	참여	1.92(.42)	2.55(.82)	2.14*
	민감성	1.30(.60)	2.70(.25)	6.81*
	침해	1.27(.94)	.21(.27)	-3.41*
	긍정적인 정서	1.12(.57)	2.58(.51)	6.01*
	체념/불안 행동	.31(.29)	.00(.00)	-3.42*
	거절	.22(.39)	.00(.00)	-1.75
상호간행동	성공적인 개입	1.49(.59)	2.61(.36)	5.12*
	영아 스트레스의 조절	2.52(1.51)	3.83(.23)	2.70*

* $p < .05$

긍정적인 정서를 덜 보였다. 또한 미혼모집단에서 모와 영아 상호간 성공적인 개입과 영아 스트레스 조절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혼모와 일반모 두 집단 간 모의 비전형적 행동(AMBIANCE) 비교

미혼모와 일반모 두 집단 간 상호작용 놀이 평가에 나타난 모의 영아를 향한 비전형적 행동(AMBIANCE)의 차이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모의 영아를 향한 침해적인 행동 총 17가지 하위항목 중 5가지 항목에서 미혼모와 일반모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미혼모가 자녀에게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친밀한 억양 사용($t = -2.89, p < .05$), 아이의 신호에 반응적 행동을 시도하지 못함($t = -3.37, p < .05$), 신체적으로 부정적, 침해적인 행동($t = -3.42, p < .05$), 언어적으로 부정적, 침해적인 행동($t = -3.40, p < .05$), 갖고 있는 물건을 빼음($t = -2.40, p < .05$), 아이로부터 거리감을 두는($t = -2.68, p < .05$) 행동을 더 나타냈다. 또한 아이의 신체 중 부적절한 부분을 만짐, 아이로부터 언어적 거리감을 두는(언어적 철회) 항목에서는 두 집단 모두 체크되지 않아 이 행동은 관찰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두 집단 간 모의 비전형적 행동(AMBIANCE) 비교

AMBIANCE 하위척도	정의	미혼모(n=10)	일반모(n=10)	t
		M(SD)	M(SD)	
1	위협적 자세와 친밀한 억양을 섞어서 사용	.21(.22)	.01(.02)	-2.89*
2	아이에게 하지 못하게 함	.24(.33)	.01(.02)	-2.24
3	반응적 행동을 시도하지 못함	.35(.29)	.03(.05)	-3.37*
4	아이를 달래주지 않음	.06(.09)	.00(.00)	-2.07
5	부적절한 정서를 보임	.10(.18)	.00(.00)	-1.76

표 5. 두 집단 간 모의 비전형적 행동(AMBIANCE) 비교 (계속)

AMBIANCE 하위척도	정의	미혼모(n=10)	일반모(n=10)	t
		M(SD)	M(SD)	
6	아이에게 애정을 요구함	.03(.05)	.00(.00)	-1.89
7	아이의 신체 중 부적절한 부분을 만짐	.00(.00)	.00(.00)	
8	아이에게 이상한 정서를 표현	.12(.24)	.07(.02)	-1.55
9	환경의 변화와 무관한 갑작스런 기분변화	.05(.13)	.00(.00)	-1.18
10	아이를 무생물처럼 다룸	.13(.21)	.00(.00)	-1.98
11	신체적으로 부정적, 침해적인 행동	.43(.33)	.06(.10)	-3.42*
12	언어적으로 부정적, 침해적인 행동	.23(.21)	.00(.00)	-3.40*
13	부정적인 감정과 동기 부여	.19(.22)	.07(.21)	-1.23
14	갖고 있는 물건을 뺏음	.16(.22)	.00(.00)	-2.40*
15	아이로부터 거리감을 둠	.09(.11)	.00(.00)	-2.68*
16	아이로부터 언어적 거리감을 둠(언어적 철회)	.00(.00)	.00(.00)	
17	아이가 장난감을 쫓아 따라가게끔 멀리 둠	.09(.19)	.00(.00)	-1.43

* $p < .05$

미혼모와 일반모의 상호작용 놀이상황 별 분석비교

장난감 없는 자유놀이에서는 미혼모의 영아들은 일반모의 영아들보다 영아 행동영역에서 긍정적인 정서($t=4.53, p<.05$), 관심추구($t=2.35, p<.05$)를 덜 보였고, 모와의 상호작용시 더 회피($t=-3.15, p<.05$)적 이었다. 모 행동 영역에서 미혼모는 일반모 보다 자녀와의 놀이에 덜 참여($t=3.44, p<.05$)적이고 민감성이 부족했으며($t=5.05, p<.05$), 더 침해적($t=-2.77, p<.05$)이고 긍정적인 정서($t=3.52, p<.05$)를 덜 보였다. 상호간행동영역에서 미혼모의 자녀는 일반모의 자녀보다 모와 상호작용(주고받기 놀이)에 덜 참여하였으며($t=5.01, p<.05$), 미혼모는 영아의 스트레스를 빨리 달래지 못하였다($t=2.70, p<.05$)(표 6 참조).

장난감있는 자유놀이에서는 미혼모의 영아

들은 일반모의 영아들보다 영아 행동영역에서 긍정적인 정서($t=4.80, p<.05$), 관심추구($t=2.47, p<.05$), 대상개입($t=2.31, p<.05$)을 덜 보였고, 모와의 상호작용시 더 회피($t=-2.54, p<.05$)적이고 저항적($t=2.47, p<.05$)이었다. 모 행동 영역에서 미혼모들은 일반모들 보다 덜 참여($t=3.48, p<.05$)적이고 민감성이 부족했으며($t=5.26, p<.05$), 더 침해적($t=-2.60, p<.05$)이고 긍정적인 정서($t=3.79, p<.05$)를 덜 보였다. 상호간 행동 영역에서는 모에 의해 놀이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미혼모의 자녀들이 일반모의 자녀들 보다 상호작용(주고받기 놀이)에 덜 참여하였다($t=3.13, p<.05$)(표 7 참조).

지정된 순서가 있는 구조화된 놀이에서는 미혼모 영아들이 일반모의 영아들보다 영아 행동영역에서 긍정적인 정서($t=2.45, p<.05$)와 관심추구($t=2.95, p<.05$)를 덜 보이고 모의 상호작용을 회피($t=-2.75, p<.05$)하고 저항($t=$

표 6. 미혼모와 일반모 상호작용 놀이상황 1단계(장난감 없는 자유놀이) 비교분석

	행동평정척도	미혼모(n=10)	일반모(n=10)	t
영아행동	긍정적인 정서	.74(.58)	2.04(.69)	4.53*
	부정적인 정서	.66(.63)	.20(.38)	-1.98
	회피	1.10(.69)	.30(.40)	-3.15*
	저항	.54(.53)	.16(.30)	-1.97
	관심추구	1.74(.73)	2.44(.59)	2.35*
	스트레스 조절	2.18(.91)	2.82(.35)	2.08
	대상개입	.00(.00)	.00(.00)	
모 행동	자기개입	.14(.33)	.42(.44)	1.62
	참여	1.94(.47)	2.64(.46)	3.34*
	민감성	1.32(.69)	2.62(.47)	5.05*
	침해	1.36(1.05)	.38(.39)	-2.77*
	긍정적인 정서	1.36(1.05)	2.62(.43)	3.52*
	체념/불안 행동	.40(.61)	.00(.00)	-2.07
	거절	.20(.44)	.00(.00)	-1.43
상호간 행동	성공적인 개입	1.24(.62)	2.46(.46)	5.01*
	영아 스트레스의 조절	2.22(1.76)	3.76(.40)	2.70*

* $p < .05$

표 7. 미혼모와 일반모 상호작용 놀이상황 2단계(장난감있는 자유놀이) 비교분석

	행동평정척도	미혼모(n=10)	일반모(n=10)	t
영아행동	긍정적인 정서	.14(.31)	1.46(.81)	4.80*
	부정적인 정서	.28(.30)	.08(.25)	-1.61
	회피	.74(.65)	.18(.26)	-2.54*
	저항	.42(.48)	.04(.13)	-2.44*
	관심추구	2.04(.42)	2.64(.49)	2.47*
	스트레스 조절	2.50(.67)	2.94(.13)	.83
	대상개입	1.62(.26)	1.34(.33)	2.31*
모 행동	자기개입	.08(.19)	.28(.42)	1.48
	참여	1.22(.86)	2.78(.33)	3.48*
	민감성	1.28(.71)	2.76(.23)	5.26*
	침해	1.22(.86)	.08(.19)	-2.60*
	긍정적인 정서	.94(.59)	2.54(.35)	3.79*
	체념/불안 행동	.38(.49)	.00(.00)	-2.23
	거절	.16(.28)	.00(.00)	-1.58
상호간 행동	성공적인 개입	1.54(.71)	2.68(.39)	3.13*
	영아 스트레스의 조절	2.20(1.77)	3.92(.19)	1.24

* $p < .05$

표 8. 미혼모와 일반모 상호작용 놀이상황 3단계(지정된 순서가 있는 구조화된 놀이) 비교분석

	행동평정척도	미혼모(n=10)	일반모(n=10)	t
영아행동	긍정적인 정서	.56(.59)	1.40(.90)	2.45*
	부정적인 정서	.20(.38)	.18(.27)	-.014
	회피	.60(.58)	.08(.14)	-2.75*
	저항	.12(.16)	.32(.24)	-2.44*
	관심추구	1.84(.67)	2.50(.51)	2.95*
	스트레스 조절	2.52(.73)	2.74(.41)	2.02
	대상개입	1.62(.26)	1.34(.33)	-.32
모 행동	자기개입	.06(.13)	.20(.27)	1.36
	참여	1.92(.59)	2.72(.42)	5.34*
	민감성	1.34(.67)	2.64(.41)	6.30*
	침해	1.14(1.13)	.18(.29)	-4.08*
	긍정적인 정서	1.18(.73)	2.28(.56)	7.30*
	체념/불안 행동	.16(.23)	.00(.00)	-2.43*
	거절	.28(.56)	.00(.00)	-1.80
상호간 행동	성공적인 개입	1.70(.70)	2.58(.55)	4.47*
	영아 스트레스의 조절	3.14(1.67)	3.80(.25)	3.05*

* $p < .05$

-2.44, $p < .0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행동 영역에서 미혼모들은 영아를 놀이에 참여($t = 2.45$, $p < .05$)시키지 못하고 민감성($t = 2.45$, $p < .05$)과 긍정적인 정서($t = 2.45$, $p < .05$)를 덜 나타냈으며 침해($t = -4.08$, $p < .05$)적이고 체념/불안행동($t = -2.43$, $p < .05$)은 더 많이 보였다. 상호간행동영역에서는 미혼모들이 먼저 시도해 아동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t = 4.47$, $p < .05$)덜 보였고 영아의 스트레스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였다($t = 3.05$, $p < .05$)(표 8 참조).

미혼모와 일반모의 상호작용놀이상황별 비전형적 행동(AMBIANCE) 비교분석

미혼모와 일반모의 모-자녀 상호작용 놀이

상황별 비전형적인 행동 비교분석에 따라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놀이 전체 내용을 비교 평가하였을 때에는 전체 17가지 하위 항목 중 1, 2, 3, 11, 12, 14, 15 총 5개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상호작용 놀이 상황별 차이는 놀이 1단계에서는 5개, 놀이 2단계에서는 4개, 놀이 3단계에서는 1개 영역에서 차이를 보여 상호작용 놀이 상황의 변화에 따른 비전형적 행동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즉, 미혼모의 경우 장난감이 없는 자유놀이 상황에서 비전형적인 행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구조화된 (규칙이 있는) 놀이상황에서는 비전형적인 행동의 특성이 줄어들음을 알 수 있었다(표 9 참조). 미혼모의 상호작용놀이상황별 비전형적인 행동에 관한 자세한 예시는

표 9. 미혼모와 일반모의 상호작용 놀이상황별(1, 2, 3 단계) 비전형적인 행동 비교분석

AMBIANCE 하위척도	정의	미혼모(n=10)		일반모(n=10)		t
		M(SD)	M(SD)	M(SD)	M(SD)	
상호작용 놀이상황 1단계						
1	위협적 자세와 친밀한 억양을 섞어서 사용	.30(.33)	.00(.00)			-2.88*
3	반응적 행동을 시도하지 못함	.46(.31)	.04(.13)			-3.93*
11	신체적으로 부정적, 침해적인 행동	.50(.38)	.16(.23)			-2.43*
12	언어적으로 부정적, 침해적인 행동	.24(.23)	.00(.00)			-3.34*
15	아이로부터 거리감을 둠	.15(.20)	.00(.00)			-2.42*
상호작용 놀이상황 2단계						
2	아이에게 하지 못하게 함	.28(.34)	.02(.06)			-2.36*
3	반응적 행동을 시도하지 못함	.32(.36)	.02(.06)			-2.63*
11	신체적으로 부정적, 침해적인 행동	.40(.30)	.00(.00)			-4.24*
14	갖고 있는 물건을 뺏음	.28(.36)	.02(.06)			-2.28*
상호작용 놀이상황 3단계						
11	신체적으로 부정적, 침해적인 행동	.48(.41)	.08(.19)			-2.77*

*p<.05

표 10. 미혼모와 일반모의 상호작용 놀이상황별(1, 2, 3 단계) 비전형적인 행동의 예시

AMBIANCE 하위척도	정의	예시
상호작용 놀이상황 1, 2, 3단계		
1	위협적 자세와 친밀한 억양을 섞어서 사용	1) 놀이를 시작하기 전 준비하며 갑자기 양말벗겨 아이를 놀래키기 2) 아기를 위로 크게 던지고 받기 3) 아기가 도망가려하자 강하게 잡으며 "미안해요"라고 말하기 4) 놀이라고 생각하고 강하게 간지럽 피우자 아기가 울음.
3	반응적 행동을 시도하지 못함	1) 놀이를 하고싶어 칭얼거리는 아이를 보고 "졸려 졸려?라고 말함. 2) "가!"라고 말하고 아기가 다가오자 "왜이래, 안 돼 만지지마!"라고 하며 아기가 엉엉 거리자(20초) "왜 울지?왜 울지? 뭐 가지고 놀고 싶은데?"라고 말함 3) 아기는 소리나는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는데,母는 공을 벽에 던지고 받는 놀이를 혼자서 하다가 아기가 공에 관심보이며 입으로 대자 "OO야. 그거 먹는거 아니야. 이것봐~!"라며 공을 계속 던지다 결국 아기 머리에 맞음. 공에 맞은 아이를 보고 "아이 귀여워~!"라고 하고는 아이의 엉덩이를 두드려 줌.
11	신체적으로 부정적, 침해적인 행동	1) 아이를 훌훌 들어 올려 흔들거나, 흔들다가 아이를 놓치기도 함. 2) 아기를 안고 아기 팔을 세게 흔들기
12	언어적으로 부정적, 침해적인 행동	1) "이건 안 돼, 하지만 노래부르자? 응?응?응?"
15	아이로부터 거리감을 둠	母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고 말을 하며 책을 가지고 오라고 아이에게 시키며, 아이에게 "무슨 책일까? 엄마가 책 읽어 줄게요. 책 갖고 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함. 아이는 다른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표 10. 미혼모와 일반모의 상호작용 놀이상황별(1, 2, 3 단계) 비전형적인 행동의 예시 (계속)

AMBIANCE 하위척도	정의	예시
상호작용 놀이상황 2단계(장난감있는 자유놀이)		
2	아이에게 하지 못하게 함	1) “먹는거 아니야, 봐봐,” 아기가 울자 “미안해”하며 웃음 2) “야! 먹지말라고” 라고 아이에게 강하게 말함
3	반응적 행동을 시도하지 못함	“00야 (장난감)뭘오라며?” 라고 하자 아기가 눈맞춤 안함
11	신체적으로 부정적, 침해적인 행동	1) 큰 목소리를 사용하여 말하기. 2) 장난감을 얼굴 가까이 앞에서 흔들기(아기는 눈을 깜빡거림) 3) 아이를 안아 팔을 흔들고는 웃기 4) 아기 얼굴에 공을 던지고 웃은 후 “재미없어?”말하기
14	갖고 있는 물건을 뺏음	“이제 이거 싫어? 그럼 그만해!” 하고 장난감을 뺏기
상호작용 놀이상황 3단계(지정된 순서가 있는 구조화된 놀이)		
11	신체적으로 부정적, 침해적인 행동	1) 아기가 딸랑이 잡으려하자 낚아채서 흔들기 2) 아기 몸을 번쩍 들어서 획 획 돌리기 3) 물건을 획 치움3) “안 갖고 놀래? 놀러봐, 앉아.”라고 말하며 억지로 공 넣으라고 시킴

표 10에 기술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들이 많아지고 2015년 기준 양육미혼모 가정 중 자녀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연령이 영유아기라는 보고에 따라(여성가족부, 2015) 해당연령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양육특성을 세밀한 상호작용분석 과정을 통해 밝히고자 했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 본 미혼모와 일반모의 정신건강 특성과 관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혼모집단과 일반모집단의 정신건강과 양육관련 검사결과 우울과 불안, 양육스트레스 면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우울검사 결과 미혼모집단의 CES-D-10 평균점수가 7.9점으로 선행연구결과

에 의거하여(Thröstur et, al., 2013) 절단점 수준으로 높은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우울증 환자 연구에서 진단기준 8점을 기준으로 제시한 Lewinsohn 외(1997)의 연구결과와 높은 연령집단의 우울증상 연구에서 8-10점을 기준으로 진단 절단점을 나눈 결과에 따라(Thröstur et, al., 2013) 미혼모 집단이 일반모 집단 보다 우울정서를 더 많이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울정서는 미혼모들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충격, 아기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모든 문제를 혼자 처리해야하는 고립감 등으로 인한 우울감정이 지속될 수 있으며(황란희, 2005), 지속된 우울정서로 인해 슬픔과 고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을 비하시키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송정희, 신원섭, 연평식, 최명도, 2009) 추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되는 주요 요인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런 미혼모의 높은 우울정서는 양육스

트레스를 가중시킴으로 간접적으로 아동 학대 및 방임 위험성을 높이게 되고 이는 추후 아동의 문제행동과 비행행동을 유발하고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변호순, 최정균, 2016). 우울성향이 높은 모일수록 영아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써 영아의 정서와 정신상태를 지각하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이제영, 이경숙, 정유경, 신의진, 2011; McCabe, 2014; Toth et, al., 2009), 미혼모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고려는 양육지원관련 상담과 교육적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시 반드시 필요하다.

양육스트레스 검사 결과에서 모든 하위 척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돌 무렵 이후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박영혜, 2015)와는 다소 불일치하는 결과였다. 그러나 '역기능적 상호작용' 영역의 미혼모 평균점수가 일반모 평균점수보다 높은 경향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없이 양육자원이 취약한 상황에서 홀로 아동을 양육 하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모와 아동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지속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박영혜, 2015).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하위척도는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반응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부모와 부모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주지 않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측정한다. 하위 척도의 높은 점수는 부모와 아동 간 유대감이 우려할 만한 상태이거나 적절하게 맺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이경숙, 외 2008). 본 연구결과에서 미혼모의 다양한 비전형적 행동(AMBIANCE)이 일반모에 비해 많이 나타난 점과도 관련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미혼모자녀의 안정에착 발달 비율이 낮고 그리고 더 많은 행동문제를 갖는다는 결과를 (Madigan et al., 2006; Moran

et al., 2008) 고려할 때 미혼모에 대한 애착이론 기반 양육 혹은 상호작용 프로그램이 자녀의 영아기 시기에 반드시 개입되어야 할 당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미혼모와 일반모 집단 간 모-자녀 상호작용 및 비전형적인 행동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영아와의 상호작용 놀이상황 장면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났다. 우선 미혼모가 일반모에 비해 영아와의 상호작용시 나타난 행동특성은 영아의 행동을 통제하고 영아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정에 따르도록 하는 침해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 그리고 자녀를 놀이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참여행동과 모가 민감하게 자녀에게 초점을 두는 민감한 행동은 덜 보임으로써 부정적 특성이 나타났다. 정서면에서는 모 자신이 체념, 무력함, 걱정을 보이는 정도를 더 많이 보였고 반면 긍정적인 정서는 덜 보이는 부정적 특성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미혼모들이 자녀와의 놀이에서 '막연함을 느끼고, 자신감이 없었으며,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미혼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반복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며 자녀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결과(배유선, 2014)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미혼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평소애 했던 익숙한 놀이를 통해 자녀와 상호작용 한다는 결과(신승렬, 2015)와도 일치한다. 이는 미혼모들이 자녀와 상호작용을 할 때에 다양한 놀이를 탐색하거나 전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혼모의 영아들은 일반모의 영아들에 비해 모와의 상호작용시 모가 시도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시선을 회피하거나 철회하였으며, 모에게 화를 내고 가끔 부정적인 정서를 보이는 저항행동을 보였다. 놀이 장면 동안에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미소, 웃음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가 덜 보였으며 모의 상호작용 시도에 대해 쳐다보거나 말을 함으로써 관심을 갖고 반응하는 관심추구가 적었다. 이 결과는 미혼모 자녀의 발달초기부터 발생하는 정서조절문제와 행동문제 특성 그리고 모-자녀관계 문제 특성이 드러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특성은 조기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추후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로 볼 수도 있으므로 개입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모와 영아 상호간 행동에서도 미혼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일반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비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영아는 모가 영아에게 장난감 놀이나 상호작용을 시도했을 때 참여하는 정도가 덜 보였다. 또한 모는 영아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거나 달래어 주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다. 이는 모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감정에 압도당하거나 충동적인 조절방식을 주로 사용할 경우엔 아동 역시 발산하기, 공격적인 감정 표현하기, 문제 회피하기 등 바람직하지 않은 조절방식을 취하게 한다. 또한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서를 개방적으로 표현하고 감정 상태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며 긍정적인 대안활동을 통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모의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조절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또한 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지능과 자기조절능력이 증가한다는(양명희, 2008)점과 일반적으로 모가 자녀와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수용적, 온정적으로 상호작용 할 때, 자녀가 긍정적인

상호작용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도(김윤희, 2001; 김정미, 2003; 이주희, 2010; 전유경, 2010;,, 최은정, 2012;,, 한경님, 2012) 미혼모의 자녀와의 상호작용맥락 이해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혼모 집단의 모는 영아에게 말할 때 더 어른에게 말하듯 하거나 말의 횟수가 적었다. 이는 미혼모가 영아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익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미혼모들에게 긍정적인 의사소통방법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 자녀와의 소통시 협박, 경고 등을 사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고 I-message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던 결과에 따라(Goldstein, & Brooks, 2005) 이러한 내용을 미혼모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혼모의 경우 영아기 자녀와의 전체 놀이상호작용에서 일반모에 비해 비전형적 행동을 더욱 많이 보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친밀한 억양을 섞어서 사용하고 영아의 신호에 반응적인 행동을 시도하지 못했다. 언어/신체적으로 부정적이고 침해적인 행동을 하고, 갖고 있는 물건을 빼앗고, 아이로부터 거리감을 두는 등의 부정적인 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영아기 자녀와 광범위하게 비전형적인 상호작용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결과(Culp, Culp, Osofsky, & Osofsky, 1991; Garcí a Coll, Hoffman, Van Houten, & Oh, 1987; Ward & Carlson, 1995)와 매우 일치하고 있다.

셋째, 미혼모와 일반모 집단 간 놀이 상황 단계별 상호작용 및 비전형적 상호작용을 살

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혼모의 비전형 행동은 자유놀이상황에서보다 구조화된 순서 놀이 상황에서 보다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모가 자녀와의 놀이에서 '막연함'을 느끼고, 자신감이 없었으며,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는 결과(배유선, 2013)와 연결지어 볼 때, 미혼모의 경우 놀이감과 놀이의 순서가 있는 상황에서는 비교적 상호작용의 문제점이 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혼모가 모-자녀 상호작용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평소에 익숙한 놀이를 통해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신승렬, 2015)한다는 결과와 같이 상호작용에 익숙하지 않은 미혼모의 경우 구조화된 놀이에서 자녀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애착관점에서 미혼모가 비조직화된 애착유형을 지닐수록 놀이감이 없는 자유놀이 상황에서 놀이감이 있는 상황보다 비전형적인 행동특성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결과(Madigan et., 2006) 추후 미혼모의 자녀와의 상황별 상호작용특성분석에서 모의 애착유형요인을 고려해 해석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그러므로 미혼모의 모-자녀 관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접근에 있어 개입 중 부여받은 과제를 연습함으로써 아이와의 결속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므로(McGuire & McGuire, 2001), 애착유형과 같은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함은 물론 발달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양육 정보의 제공과 훈련이 비전형적행동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앞선 연구에서 놀이 개입을 통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혼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놀이를 활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감을 보였으

며 반영적 경청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용적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피드백을 제시하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보고를 한 결과는(배유선, 2014) 미혼모의 놀이상호작용 개입 방식을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예측하게 한다.

본 연구는 미혼모집단의 모와 영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세분화된 분석을 사용하여 양육과 관련된 주요 정신건강척도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모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 결과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아기 자녀와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미혼모 상담 및 양육 접근 프로그램에 정보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증거기반적 자료들이 수집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미혼모와 영유아기 자녀라는 특수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 어려움으로 연구대상의 수가 충분치 않아 일반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상호작용 중 언어표현영역에서 제한된 분석이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모-영아 상호작용 행동을 평정할 때에 평정자의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양육자의 사전정보를 제한하여 객관적으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애착유형특성에 따른 상호작용 특성 분석 등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제안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미혼모의 영아기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 미혼모의 양육효능감이 증가하고 자녀들은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희정 (2014). 미혼모성의 경험을 통해 본 근대의 탈모성화 역사. *구술사 연구*: 5(2), 37-80.
- 김만지 (2000). 미혼모의 스트레스 관리 향상을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적용.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5(0), 41-70.
- 김만지 (2002). 미혼모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신 (2011). 생애사적 접근을 통한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경험.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5(1), 27-58.
- 김윤희 (2001). 어머니 역할만족도와 언어통제유형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 (2003). 관계중심적 중재가 아동의 포괄적 발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271-285.
- 김혜영 (2010). 십대 청소년 미혼모의 출산 및 양육경험; 주체와 타자의 경계에서. *한국여성학*: 26(4), 101-131
- 남미애 (2013).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우울과 전반적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44(0), 91-125
- 도미향, 정은미 (2001). 10대 미혼모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2), 1-11.
- 박영혜 (2015). 미혼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경 (2014). 미혼양육모가 경험하는 심리현상. *백석대학교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호순, 최정균 (2016). 빈곤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상, 양육스트레스, 아동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사회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53(0), 1-23.
- 보건복지부 (2016).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15~2019).
- 보건복지부 (2016). 네이버블로그 위드맘.
- 배영미 (2001). 청소년미혼모의 개인심리적 특성과 가족체계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유선 (2014). 발달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놀이 치료 프로그램이 양육미혼모의 정서조절양식, 부모효능감 및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애 (2009). 십대여성의 임신과 '모성선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석 홍 (1990). 미혼모와 혼외자의 법리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홍숙 (1995). 가정복지면에서 본 미혼모 발생요인 및 예방대책에 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5), 51-62.
- 송정희, 신원섭, 연평식, 최명도 (2009).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미혼모의 우울감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임학회: 한국임학회지*, 98(1), 82-87.
- 신승렬 (2015). 자녀상호작용행동과 모의 양육효능감 및 놀이신념의 관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13). 내부자료.
- 안순덕 (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연구보고서*: 23(1), 90-143.
- 양명희 (2008). 학습상황에서 정서의 원천과

- 정서적 조절 전략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 방법학회: 추계학술심포지엄, 61-62.
- 여성가족부 (2014).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지침, 한부모가구 비율.
- 여성가족부 (2015).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지침, 한부모가구 비율.
- 윤미현 (2000). 10대 미혼모의 임신 및 유아입양 관련요인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미현, 이재연 (2002). 한국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149-169.
-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 김혜진 (2008).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검사-축약형(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363-377.
- 이미정 (2011). 미혼모의 자녀양육 의지와 현황. 이화젠더법학: 2(2), 79-107.
- 이명희 (2007). 자녀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의 경험.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복숙, 전영주 (2005). 미혼모 생애사 연구. 여성연구논집: 16, 1-32.
- 이선경 (2014). 미혼양육모의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희 (2001). 보호시설 미혼모의 삶에 대한 참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 최규련 (2014). 시설미혼모의 양육/입양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 학회지: 25(2), 247-260.
- 이애령 (2004).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희 (2010). 첫 자녀 출산 후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제영, 이경숙, 정유경, 신의진 (2011). 산후 우울 성향 어머니와 6-8개월 영아의 상호작용 분석.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32(3), 203-220.
- 임혜영, 이혁구 (2013). 입양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3), 53-78.
- 전영천 (2009). 청소년 약물남용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유경 (2010). 다문화가정과한국가정 모-자 상호작용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상담실에 의뢰된 아동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순 (2008). 십대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경험. 아동간호학회지: 14(2), 186-194.
- 전은희 (2003). 미혼모의 심리적 특성과 사이코드라마 전략. 한국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학회: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6(1), 63-84.
- 주석진 (2011). 도시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생태학적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가족 사회복지학회: 36, 93-120.
- 최경화 (2006). 양육미혼모의 삶의 과정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승희 (2003). 청소년 미혼모들의 슬픔 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10(4), 1-20.
- 최윤정 (2008). 가족상담: 한부모 가족 여성가장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9(4), 1835-1850.
- 최은정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 스와 놀이신념이 아동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 제52차 여성정책포럼.
- 한경님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73, 171-190.
- 한상순 (2002). 한국미혼모 실태 및 예방과 대책: 한국미혼모의 실태 및 미혼모 시설의 현황. 서울: 애란원.
- 한영란, 양순옥 (1997). 미혼모의 임신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1(2), 194-208.
- 한지현, 이영환 (2005). 모-영아 상호작용 행동평가 척도 개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1, 291-312.
- 황란희 (2005). 보호시설 미혼모의 태아애착행위와 상태불안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1(3), 218-224.
- 홍봉선, 남미애 (2011).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지원체계 구축방안. *청소년학연구*: 18(9), 19-52.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ndresen, E. M., Malmgren, J. A., Carter, W. B., & Patrick, D. L. (1994) Screening for depression in well older adults: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ES-D.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0(2), 77-84.
- Aurora, P. J., Kathleen. S. J., & Crystal, A. T. (2013). Single Mothers, Nonresident Fathers, and Preschoolers' Socioemotional Development: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ing Quality.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9(1), 129-140.
- Bowlby, J. (1982).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Bronfman, E. T., Parsons, E., & Lyons-Ruth, K. (1999). *Atypical Maternal Behavior Instrument for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AMBLANCE), Version 2. Unpublished manual*, Harvard Medical School, Cambridge, MA.
- Crowell, J. A., & Feldman, S. S., (1988). Mother's internal working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5), 1273-1285.
- Culp, R., Culp, A., Osofsky, J., & Osofsky, H. (1991). Adolescent and older mothers' interaction patterns with their six-month-old infants. *Journal of Adolescence*, 14(2), 195-200.
- García Coll, C., Hoffman, J., Van Houten, L., & Oh, W. (1987). The social context of teenage childbearing: Effects on the infant' caregiving environ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4), 345-360.
- Goldstein, S., & Brooks, R. (Eds.). (2005).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New York: Springer.
- Lewinsohn, P. M., Seeley, J. R., Roberts, R. E., & Allen, N. B. (1997).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as a screening instrument for depression among community-residing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12(2), 277-287.
- Lonja, W., Ralf, S., & Matthias, F. (2014). Long-term efficacy of an-133 -attachment-

- based parental training program for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Public Health*, 22(2), 139-153.
- Madigan, S., Morgan, G., and Pederson, D. R. (2006). Unresolved state of mind, disorganized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disrupted interactions of adolescents mothers and their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2(2), 293-304.
- McGuire, D. K., McGuire, D. E. (2001). Linking parents to play therapy: A practical guide with applications, interventions, and case studies. Philadelphia, PA: Brunner-Routledge.
- Miller, A. L. (2000). *Mother-infant interaction across situations: Assessing contextual effects on behavior and predicting toddlers socio-emotional outco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Moran, G., Forbes, L., Evans, E., Tarabulsky, G. M., and Madigan, S. (2008). Both maternal sensitivity and atypical maternal behavior independently predict attachment security and disorganization in adolescent mother-infant relationships. *Infant Behavior Development* 31(2), 321-325.
- Schore, A. N. (2000). Attachment and the regulation of the right brain.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21(1), 23-47.
- Stolt, S., Korja, R., Matomäki, J., Lapinleimu, H., Haataja, L., Lehtonen, L. (2014). Early relations between language development and the quality of mother-child interaction in very-low-birth-weight children. *Early Human Development*, 90(5), 219-225.
- Thröstur Björgvinsson, Sarah, J. Kertz., Joe, S. Bigda-Peyton., Katrina, L. McCoy., Idan, M. Aderka. (2013).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ES-D-10 in a psychiatric sample. *Assessment*, 20(4), 429-436.
- Toth, S. L., Rogosch, F. A., Sturge-Apple, M., and Cicchetti, D. (2009). Maternal depression, children's attachment security, and representational development: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80(1), 192-208.
- Tronick, E. Z., & Weinberg, M. K. (1992). *Manual for the face-to-face still-face paradigm*. Children's Hospital, Boston, M. A.
- Wahn, H. E., & Nissin, E. (2008). Sociodemographic background, lifestyle and psychosocial conditions of Swedish teenage mothers and their perception of health and social support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6(4), 415-423.
- Ward, M. J., & Carlson, B. (1995). Associations among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 - other attach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66(1), 69-79.
- Zeanah, C. H., Boris, N. W., Heller, S. S., Hinshaw-Fuselier, S., Larrieu, J. A., Lewis, M., Palomino, R., Rovaris, M., & Valliers, J. (1997). Relationship assessment in infant mental health.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8(2), 182-197.

1차원고접수 : 2017. 07. 26.

심사통과접수 : 2017. 10. 24.

최종원고접수 : 2017. 11. 26.

Analysis of Mental Health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of Single Mothers

Kyung Sook Lee

Jung Sook Roh

Soo Jin Kim

Hanshin University

DiDimClinic

This study compares parent-child interactions of single mothers with those of typical mothers raising children at the stage of infants and toddlers. Subjects were ten families of single mothers living in two homes for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a program to support single parent families. The control group included ten typical families of mothers at the same age level of the single mothers who had children at the stage of infants and toddlers. Mental health of the mothers were measured by CESD-10 for depression and STAI for anxiety. Parenting variables were checked by the K-PSI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were measured by a mother-child interaction assessment tool. Mothers' atypical behaviors were measured and classified by AMBIENCE. It was found that children of single mother showed higher levels of avoidance and resistance in interactions with their mother and lower levels of positive emotion and pursuit of interest than children of the typical mothers. The single mothers showed higher levels of invasion, resignation, and anxiety and lower levels of participation, sensitivity, and positive emotion in interactions with their children than the typical mothers. The single mother showed higher levels of difficulty in mother-child intervention and stress control of children. In terms of intonation and emotional tones in language expression by mothers to their children, the single mother spoke to their children as if they were talking to adults, talked to their children infrequently, and used monotonous intonation. The single mothers also showed threatening attitude toward their children and failed to use cozy intonation and make response to their children's signals properly. They were more negative and invasive physically and verbally and showed higher levels of behaviors of taking things from their children and keeping distance from their children than the typical mothers.

Key words : single mothers, infants and toddlers, parent-child interaction, atypical behaviors